

화신사이버대학교 공식 커뮤니티 오픈
<https://cafe.naver.com/hscu3>



전자도서관 이벤트 : 출석하고 선물 받자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소식 목차

- P.01 전자도서관 이벤트 - 출석하고 선물받자!
화신사이버대학교 공식 커뮤니티 오픈
- P.02 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이상기
화신사이버대학교 one-stop 서비스 진행
- P.03 2021년도 1학기 보육교사 대면수업
화신사이버대학교, 2020학년도 대학 운영 환류 및 2021학년도 운영계획 워크숍 실시
- P.04 화신사이버대학교-연산도서관, 지역주민대상 특강 실시
화신사이버대학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
- P.05 졸업생 한마디 : 최재한 학우

각종 협약

- 화신사이버대학교,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디지털금융자산연구원, 미네르바AI융합칼리지 3자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해운대 구청 및 미네르바AI융합칼리지와 관학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부산향토학교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사단법인 부산학원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순복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교단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함양군철갑상어영어조합법인 업무협약 체결

출석하고 선물 받자!



화신사이버대학교 전자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독서량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벤트를 진행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참가대상 :** 화신사이버대학교 전자도서관 회원 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2. 행사기간 :** 가. 전체 행사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2년 2월(11개월)
나. 매월 1일 ~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이벤트 당첨자 선발(총 11회)
- 3. 참여방법 :** 가. 화신사이버대학교 부설 전자도서관 회원 가입
나. 도서 대출해서 읽기
- 4. 당첨선물 및 선발 방법 :**
가. 도서 대출자중 특정 순서의 도서대출자에게 모바일 쿠폰 1매 증정
나. 대출자 중 1, 10, 50, 100, 150, 200, 250, 300번째 도서 대출자 (총 8명 증정)

화신사이버대학교 공식 커뮤니티 오픈

화신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2021년 4월 학교 공식커뮤니티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학과별 정보와 지역별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hscu3>



2021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1년 6월 1일 ~

입학상담 : 1588-5215

글로벌교육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

실용외국어학과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영상콘텐츠학과

상담복지학부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복지경영학과



HSCU 화신사이버대학교



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이상기



안녕하십니까? 융합스포츠지도학과 이상기 교수입니다.

융합스포츠지도학과는 스포츠 기반의 융복합 교과목으로 미래형 스포츠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이들은 높은 ‘삶의 질’을 원합니다. 이러한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는 건강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건강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많은 분야에서의 활동 자체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체육지도자들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강관리자의 선두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학과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지도자 양성은 물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접근 방식의 교육으로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지킴이’ 그리고 뛰어난 체육지도자로서의 당당히 역할을 수행할 학우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은 “나는 실패는 받아들 수 있다. 누구나 실패는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멈추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화신사이버대학교 one-stop 서비스 진행

재학생(2021년 신·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습전략을 살펴보고자 4월 21일(수)부터 5월 12일(수)까지 CAT(대학생활적응), 심리긍정자원 검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대학은 해당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요인과 학업전략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검사를 통해 재학생(신·편입생)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며, 나아가 대학생활에서의 보완해야 할 요소들을 알게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021년도 1학기 보육교사 대면수업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대면수업이 지난 3월 13일(토), 20일(토), 27일(토), 4월 3일(토), 10일(토), 17일(토) 총 6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실시 되었다.

오프라인 수업은 본교 다목적홀에서 진행하였고 안전한 환경에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독과 방역, 책상 간 거리두기 및 발열체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면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우들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화신사이버대학교, 2020학년도 대학 운영 환류 및 2021학년도 운영계획 워크숍 실시



3월 16일(화) 본교 8층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대학운영 환류 및 2021학년도 운영계획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시작에 앞서 황주권 총장은 “형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좋았던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년 동안 대학의 운영내용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2021학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각 부처별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본교 교직원들이 더 나은 운영과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화신사이버대학교-연산도서관, 지역주민대상 특강 실시



화신사이버대학교의 협약기관인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주최로 연제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인 3색 릴레이 인문학 강연’이 2020년 11월 4일, 11일, 18일(수)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교는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과 함께 주최한 특강 3부작을 통해 본교 재학생, 졸업생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첫번째 특강 :

한국어교육학과 양민철교수 : ‘한국어, 세계를 품다.’

두번째 특강 :

사회복지학과 김영준교수 : ‘문화와 예술, 복지를 읽다, 놀면 뭐하니?’

세번째 특강 :

상담심리학과 전윤미교수 : ‘MBTI로 알아보는 즐거운 사회생활’

화신사이버대학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



본교 교직원들은 2020년 12월 8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

본 행사는 우리 대학과 협약관계인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실시하였고, 우리 대학 저소득 재학생 65가구와 부산지역 저소득 취약 계층 대상인 735가구에 택배와 직접 배송으로 전달을 하였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모산에프에스 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김치를 포장하여 배송하는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졸업생 한마디 : 최재한 학우

2020년 8월 한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2019학번 최재한입니다. 저는 졸업 후 작년 10월 30일 한국어교원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을 취득 후 세종학당과 코이카를 통한 해외파견교원의 신분으로 한국어교육 해외봉사행 꿈을 가지고 다수 대학의 국제교류처/언어교육원, 초/중/고 방과 후 한국어학급, 각 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 모두 고배를 경험하였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해운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제안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중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중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동명대학교 모 교수님의 요청으로 국제물류학과와 베트남 유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영어로 한국어 특강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 아픈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하는 것이 어떨것냐는 양민철 교수님의 제안으로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우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졸업 및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진로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 졸업과 동시에 주저함이 없이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도전을 권합니다. 현재 대학교 국제교류처 등의 10주짜리 강사 모집공고조차도 최소한 석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이 아닌 봉사 차원의 한국어교육을 생각하는 경우, 저와 같이 약 5~6개월 동안의 지원-탈락 과정에 따른 실망의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또는 보조교사 경력을 쌓을 것을 권합니다. 경험이 평가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현재 한국어 강사의 일을 하고 있거나 예비 강사들의 정보교환 및 소통의 광장인 네이버 카페/블로그(한국어교원, 국제한국어교원협회 등 다수)에 가입하여 회원들이 올린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후배들이 희망하는 각자의 목표에 빨리 다가가는 데 제가 가진 경험과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공유하겠습니다.